

마태복음 18:21-35

- 21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. “주님,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,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?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?”
- 2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. “일곱 번만이 아니라,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.
- 23 그러므로, 하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썴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.
- 24 왕이 썴을 가리기 시작하니,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.
- 25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, 주인은 그 종에게,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.
- 26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, ‘참아 주십시오. 다 갚겠습니다’ 하고 애원하였다.
- 27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, 그를 놓아주고, 빚을 없애 주었다.
- 28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,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, 붙들어서 멍살을 잡고 말하기를 ‘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’ 하였다.
- 29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. ‘참아 주게. 내가 갚겠네.’
-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,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,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.
- 31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, 매우 딱하게 여겨서,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.
-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. ‘이 악한 종아, 네가 애원하기에,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.
-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,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?’
- 34 주인이 노하여,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,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.
- 35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,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.”

*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.

1. 예수님은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(21, 22절).

1) 베드로가 생각한 용서의 최대치는 몇 번입니까(21절)? : 일곱 번

2)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까(22절)? :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.

나눔 1

주께서 무한히 베풀라고 하실 만큼 용서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만,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.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, 그럼에도 개인과 공동체, 사회에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.

2. 예수님은 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를 가르치십니다(23-35절).

1) 주인이 종의 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(27절)? :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.

2) 주인이 만 달란트 빚진 종을 감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입니까(28-34절)? : 그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.

3)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,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(35절)? :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.

나눔 2

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,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재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용기를 얻어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나,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크게 깨달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봅시다.

나눔 3

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명령을 오용하면, 가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주거나, 피해자에게 또 다른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부분은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눠봅시다.

함께 기도합시다

*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용납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소서.

*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.